



보도 시점

2026. 8. 25.(화) 11:00

배포

2026. 8. 25.(화) 06:00

8. 26.(수) 조간

명절 중심 배 시장 판도 바꾼다.. '녹색배'로 일상 소비 확대

- 명절용 큰 배 중심 시장 구조에 변화 시도

- '설원'·'슈퍼골드'·'그린시스' 등 차별화된 맛·식감 녹색배 품종 보급 확대

- 소비자 선택 폭 넓히고, 배 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던 큰 배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녹색배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설원'·'슈퍼골드'·'그린시스' 등 차별화된 품종을 앞세워 국산 배의 일상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배 시장은 명절용 '신고' 품종 중심으로 형성돼 농가의 재배·출하 전략도 추석과 설 명절 수요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신고' 재배 면적은 전체 배 재배 면적의 85.4%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에는 과일 소비가 명절 선물용 중심에서 벗어나, 평소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와 다양한 맛, 용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신고' 중심의 갈색배 시장에서 소비자가 새로운 품종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품종별 강점도 뚜렷한 녹색배 품종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맛 우수, 속살이 눈처럼
하얀(雪圓) '설원'



녹황색(Gold) 배 중
맛 으뜸(Super) '슈퍼골드'



과즙 풍부한(Oasis)
녹색배(Green) '그린시스'

‘설원’은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600g, 당도는 14브릭스 이상으로 단맛이 뛰어나고 과육이 아삭하며 갈변 속도가 느려 조각용 과일로 활용성이 높다. 열매 크기와 품질이 균일해 선별·포장이 쉽고 대량 유통에도 유리하다.

‘슈퍼골드’는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570g, 당도는 13.6브릭스 수준이며, 은은한 산미가 있어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중도매인 대상 시장성 평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맛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린시스’는 9월 중순에 수확하는 중생종으로, 평균 무게는 460g, 당도는 12.3브릭스 수준이다. ‘그린(Green)’과 ‘오아시스(Oasis)’를 합친 이름처럼 녹색 껍질과 풍부한 과즙,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검은별무늬병에 강해 안정적인 생산에 유리하며, 상온에서 약 30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설원’ 10헥타르(ha), ‘슈퍼골드’ 27헥타르(ha), ‘그린시스’ 43헥타르(ha)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전문 유통 조직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구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설원’은 울산, 나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단지 구성을 추진 중이다.**

*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통한 자체 집계 자료(2025년)

** 울산 10ha(∼’29), 나주 30ha(∼’30)

‘설원’과 ‘슈퍼골드’를 재배 중인 나주 해오름영농조합법인 김지현 대표는 “‘신고’를 오랫동안 재배해 왔지만, 소비자에게 다양한 맛의 배를 선보이고 싶어 품종 갱신을 결심했다.”라며 “녹색배는 품종마다 맛이 뚜렷해 초록색을 낫설어하던 소비자들도 한번 맛본 뒤에는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아 품종을 바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수현 원예작물부장은 “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절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평소에도 맛있는 국산 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농촌진흥청은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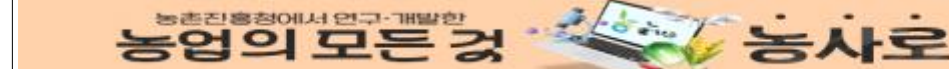
배 품종 특성에 맞는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현황과 확산 전망

붙임2. 주요 녹색배 품종 특성

붙임3. ‘설원’ 생산단지 조성 추진 현황

붙임4. 묻고 답하기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전지혜 (061-330-1510)
		담당자	연구사	정해원 (061-330-15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붙임 1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현황과 확산 전망

□ 지역별 특화품종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보급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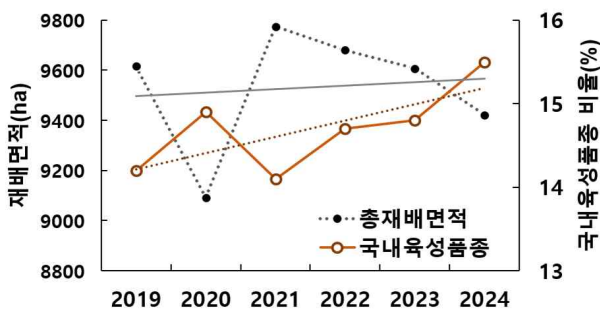
○(배경) 개별 농가 단위 생산만으로는 대량 유통 및 인지도 제고에 한계

* 소량 생산 시 도매시장 기타품목으로 분류되어 품질 대비 가격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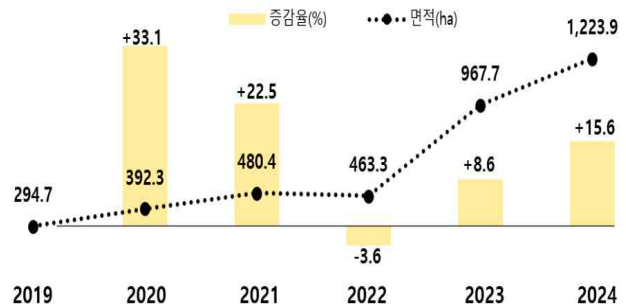
○(대응) 신품종 보급사업을 통해 지역별 적합 품종 선정·보급 추진('10~)

□ 지역별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결실이 최근 가시적으로 체감

○ 국내 육성 품종의 재배면적¹⁾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전후 개발된 '신화', '그린시스' 등 9품종 재배면적²⁾이 꾸준히 증가



▲ 총 재배면적(ha) 및 국내육성품종 비율(%) 변화



▲ '10년 전후 개발 9품종 재배면적(ha) 변화

○ 지역별 생산단지 신품종 유통이 본격화되며 소비자 체감 성과 확대

지역	품종(ha)	브랜드명	세부 내용
안성	신화(67)	안성맞춤배	원협 유통, 수출용 단지 조성
아산	그린시스(17)	초롱배	원협, 홈쇼핑 유통
울산	황금배(50), 설원(6.5)	황금실록	고당도 녹색배 전략, 원협 자체 판매
나주	신화(63), 창조(39)	천년이음	시장인증 품질보증배 온·오프라인 유통

□ 소비자 수요 확대와 안정적 유통 기반 배 신품종 보급 가속 전망

○(소비자) 오프라인 대량 유통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수요 증가

○(생산자) 유통 기반 강화로 경제적 공백기 감수 신품종 갱신 선택

배 국내 육성 품종은 보급 단계에서 자율적 확산 단계로 진입

1) 배 전체 면적(ha)과 국내 육성 품종 비율(%) (출처: KREI 농업관측 12월호)

2) 국내 육성 품종 중 주 품종으로 인식되는 '원황', '황금배', '만풍배',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9품종의 재배면적(ha) 및 증감률(%) (출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조사자료)

붙임 2 녹색배 품종 주요 특성

설원 (10ha)	■ 육성내력: ('수황배'×'만풍배') '11년 품종출원 및 통상실시 ■ 과실특성: 9월 초 수확, 과중 600g, 당도 14.0°Bx, 녹황색 ■ 고당도, 저장성↑, 생산량↑ 수요자에게 호평받고 있음	
---------------------	--	---

□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강점을 확보하여 보급 박차

- (생산) 안정적인 결실과 추석 전 대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유리
 - * '신고' 대비 개화기 1주 늦어 저온피해 회피, 평균 600g 대과를 9월 초 수확
- (유통) 저장성이 좋고 개체 간 균일성이 높아 대량 유통 유리
 - * 상온 30일 저장 가능, 연차 간 변동 없이 14°Bx 내외 고당도 안정적으로 유지
- (소비) 달고 아삭해 과피 코르크화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인기
 - * '신고' 대비 2°Bx 높고, 과육 갈변이 적어 조각과실로도 유통 가능



슈퍼 골드 (27ha)	■ 육성내력: ('추황배'×'만풍배') '09년 품종출원 및 통상실시 ■ 과실특성: 9월 초 수확, 과중 570g, 당도 13.6°Bx, 녹황색 ■ 청량감 도는 감칠맛이 일품, 중도매인 선호도 1위 품종	
------------------------	---	---

□ 새콤달콤한 맛으로 차별화된 조생종, 중도매인 선호도 1위

- (생산) 꽃가루 양이 많고 '신고'와 개화기가 비슷해 수분수로 활용 가능
 - * '신고'와 개화기가 겹치며 화분량은 290mg/100화로 꽃가루 매우 풍부
- (유통) 맛, 과피색 등에서 차별화 되어 경매사, 중도매인 호평
 - * 유통전문가의 종합만족도는 4.25점(5점 만점)으로, 특히 과즙 부분 호평
- (소비) 당산비가 조화로워 과피 코르크화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인기
 - * 기존 배와 차별화되는 은은한 산미를 지녀 단맛, 신맛, 식감이 조화로움

그린 시스 (43ha)

- 육성내력: ('황금배'×'Bartlett') '13년 품종출원 및 통상실시
- 과신평형: 9월 중순 수확, 과중 460g, 당도 12.3°Bx, 녹색
-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아삭하고 풍부한 과즙



□ 국내 최초 동·서양배 교잡 품종으로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님

○(생산) 검은별무늬병 저항성으로 해당 병 방제 부담 경감 가능

* 국내 검은별무늬병에 저항성을 보이는 서양배의 특성을 육종을 통해 도입

○(유통) 저장성이 좋아 저온 저장 시 다음 해까지 전략적 출하 가능

* 수확 후 저온저장 물량을 배 출하 공백기까지(~6월) 유통한 사례 있음

○(소비) 동양배의 아삭하고 풍부한 과즙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 높음

* 녹색 과피, 아삭한 식감, 풍부한 과즙 등 차별화된 특성으로 소비자 관심 유도



<'그린시스' 저온저장 후 다음 해 6월 유통·홍보 사례>

□ 녹색배 품종의 '과피 표면 코르크화' 발생 특성과 활용 방안

○(특성) 녹색배 품종에서는 재배환경에 따라 과피 표면에 코르크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생육 중 큐티클 층이 코르크화 되면 상대적으로 눈에 띄

○(관리)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해 경감 가능

* 백색봉지 사용하여 통풍·일조 개선, 심토 배수 강화



<과피 표면 코르크화>

○(활용) 과피 코르크화는 녹색배 고유특성으로 차별화된 홍보 가능

* 과실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어, 오히려 녹색배만의 자연스러운 외관 특성으로 활용

도매시장 진입 가능성

중앙청과 중도매인 대상 시식 평가 결과 호평 ('25. 9. 8.)

- (품 질) 당도, 식감, 저장성 우수하여 대량 유통 시장에 유리
 - (외 관) 과피 코르크화는 과실 품질로 충분히 극복 가능
 - (시장성) 프리미엄 선물뿐 아니라 배의 연중 소비 확대에도 기여 가능
- ☞ 현재 가장 큰 한계는 물량 확보 부족, 적극 보급 요청



붙임 4 묻고 답하기

질문1

‘신고’ 단일 품종으로 편중된 이유는?

- ‘신고’는 일본에서 1927년 육성돼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도입됐음.
1980년대 전체 재배면적의 35%에서 1990년대 후반 70%, 현재는 85.4%까지 확대됨
- 1990년대 지베렐린 처리로 수확을 1주일 앞당기고 과실 크기와 수확량을 늘리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른 시기에 크고 외관이 좋은 ‘신고’ 생산이 가능해졌음
 - 이후 저장기술과 재배·유통 체계가 ‘신고’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품종 편중이 가속화됐음

질문2

‘신고’ 단일 품종 편중에 따른 문제점은?

- 단일 품종 편중은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다양한 배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와 기상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추석이 이른 해에는 명절 수요에 맞춰 덜 익은 ‘신고’를 출하하기도 했음. 유통시장도 맛보다 크기와 외관 중심으로 가격을 매기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배 산업이 위축됨
 - 대과 중심 생산은 핵가족화와 소비 편의성 등 일상 소비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농가 경영 악화와 고령농의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후변화로 개화기가 빨라지면서 저온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신고’는 꽃가루가 없고 개화기가 빨라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어려우며, 최근에는 9월 고온에 따른 과실 장해 발생도 늘고 있음

질문3**농가에서 새로운 품종으로의 갱신이 어려운 이유?**

- 신품종 보급이 더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과수는 약 20~30년인 과원 갱신기에 주로 새 품종을 심기 때문에 보급에 오랜 시간이 걸림. 특히 배는 주 품종으로 자리 잡으면 50년 이상 재배할 수 있어 갱신이 더욱 어려움
 - 둘째, 품종을 갱신하면 수확과 소득이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발생해 농가 부담이 큼
 - 셋째, 배는 전국의 다양한 기후·토양 조건에서 재배되므로, 농가는 신품종을 일부 면적에 먼저 심어 해당 지역과 과원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재배면적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보급에 시간이 걸림
- (전망) 다만 최근 국내 육성 품종이 늘고 '신고' 중심 재배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면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 다양한 품종의 시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질문4**녹색배 품종에 발생하는 과피 표면 코르크화란?**

- 과피 표면 코르크화는 과실 생육 중 큐티클층과 표피가 미세하게 손상된 부위에 코르크층이 형성돼 갈색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임
- 갈색배는 과피 전반에 코르크층이 발달하지만, 녹색배는 매끈한 녹색 과피가 유지돼 일부 부위의 코르크화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띈
- 생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당도나 식감 등 내부 품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과도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 수세와 착과량 조절, 통풍·배수 관리로 발생을 줄여야 함

질문5**녹색배 품종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반응은?**

- 생산자들은 녹색배를 '신고' 중심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품종으로 평가함. 특히 '설원'과 '슈퍼골드'는 추석 전 출하가 가능하고 맛이 우수해 생산기술이 안정되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소비자들은 녹색 과피와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 등 기존 배와 다른 특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재구매 사례도 늘고 있어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소비 확대 가능성도 있음
- 과피 코르크화는 내부 품질에 큰 영향이 없어 유통 관계자들도 크게 꺼리지 않음. 과도한 발생은 재배관리로 줄이되, 자연스러운 코르크화는 녹색배만의 외관 특성으로 홍보할 수 있음

질문6**향후 배 품종 육성·보급 계획은?**

-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개화기가 늦은 품종, 자가결실성 품종, 화상병·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 등 안정 생산형 품종을 육성할 계획임
- 당도·식감·저장성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함께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디지털 육종기술로 우수 계통을 조기에 선발하겠음
- 보급 단계에서는 재배기술과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단지 조성, 유통·소비 홍보를 연계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질문7**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의 국내 육성 품종 재배 현황과 의미는?**

총 재배면적	신품종 면적 (점유율)	품종별 재배면적							
		신고	원황	추황	신화	창조	슈퍼골드	화산	기타 (황금 등)
1,642ha (100%)	425ha (25.8%)	1,217ha (74.2%)	55ha (3.2%)	92ha (5.6%)	63ha (3.9%)	39ha (2.4%)	15ha (0.9%)	17ha (1.0%)	144ha (8.8%)

<나주시 배 품종별 재배 현황('25)>

- 2025년 전국 배 재배면적은 9,316헥타르이며, 나주는 이 중 약 1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임. 나주의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비율은 25.8%로 전국 평균의 약 1.8배임
- 나주시는 국내 육성 품종 생산단지 조성 및 묘목·덕 시설 지원 등을 지속해 왔으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배면적도 확대되었음
- 국내 육성 품종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선 것은 품종의 우수성이 생산·유통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임. '신고'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맛·숙기·크기의 품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